

# 200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    |   |    |   |    |   |    |   |    |   |
|----|---|----|---|----|---|----|---|----|---|
| 1  | ② | 2  | ③ | 3  | ④ | 4  | ⑤ | 5  | ① |
| 6  | ⑤ | 7  | ⑤ | 8  | ④ | 9  | ② | 10 | ④ |
| 11 | ⑤ | 12 | ④ | 13 | ② | 14 | ① | 15 | ② |
| 16 | ⑤ | 17 | ① | 18 | ③ | 19 | ③ | 20 | ② |
| 21 | ④ | 22 | ① | 23 | ④ | 24 | ① | 25 | ② |
| 26 | ① | 27 | ⑤ | 28 | ⑤ | 29 | ③ | 30 | ② |
| 31 | ⑤ | 32 | ④ | 33 | ③ | 34 | ④ | 35 | ④ |
| 36 | ④ | 37 | ⑤ | 38 | ③ | 39 | ① | 40 | ① |
| 41 | ③ | 42 | ③ | 43 | ② | 44 | ⑤ | 45 | ③ |
| 46 | ① | 47 | ② | 48 | ② | 49 | ③ | 50 | ⑤ |

### 해설

[1]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 보는 시간입니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이란 말이 있습니다. 풀어 보면,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인데, ‘마니아’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옛날에 ‘학산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는 노래 마니아였습니다. 그는 주로 사람이 없는 호젓한 산 속에서 신발을 벗어 자신의 앞에만 놓고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면 신발 속에 모래를 한 알 담고, 또 한 곡이 끝나면 다시 모래 한 알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에 모래를 가득 채우고서야 산을 내려왔습니다. 훗날 ‘학산수’는 온 나라에 명창으로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초서를 잘 쓰기로 유명한 ‘이삼만’입니다. 옛날에는 종이를 구하기가 힘들어, 그는 하얀 천 위에다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하얀 천이 온통 까맣게 되면 깨끗이 빨아서 다시 글씨 연습을 했지요. 글씨에만 정신을 팔고 다른 일은 돌보지 않았기에 그의 가세는 기울어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글씨를 배우려는 후학들에게 ‘적어도 벼루 세 개는 먹을 갈아 구멍을 낼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학산수’가 모래알을 신발에 채우면서 노래 연습을 반복하여 명창이 된 것과 ‘이삼만’이 글씨를 열심히 연습하여 명필이 되는 과정에서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정답 ②

[2]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민철, 남고생) : 선생님! ‘웹툰’에 관한 글을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해요. 쓸 내용을 개요로 작성해 봤는데 검토 좀 해 주세요.

선생님(30~40대 여) : 그래, 어디 보자. 웹툰의 개념과 특징들을 쓰려고 하는구나.

학생 : 예~ 앞부분에는 웹툰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이 결합된 용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선생님 : 음~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다만, 개념을 설명할 때, 초창기와 달리 요즘은 세로가 긴~ 형태의 만화로 형식이 바뀐 점을 고려하면 좋겠어.

학생 : 예~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웹툰의

특징’을 다룬 항목은 어떤가요?

선생님 :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웹상의 만화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은 웹툰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지. 웹툰은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그림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보는 방식이 핵심이야.

학생 : 예~ 그러면 이 항목을 선생님 말씀대로 바꿀게요.

선생님 : ‘짧은 이야기 구성’도 한번 볼까? 이 항목도 수정을 좀 해야겠어. 매회 다른 이야기를 짧게 다루던 종전의 네 컷짜리 카툰과 달리, 요즘은 제1화, 제2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웹툰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면 좋겠구나.

학생 : 예!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 민철아~ 잠깐만! 우리 웹툰 좀 열어 볼까? 음~ (클릭 소리, 잠시 휴지) 이것 봐, 너는 ‘다양한 색감의 사용’을 특징으로 들었는데, 이것 외에도 웹툰에는 클로즈업 장면도 많지 않니? 이제 모두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이야. 그러니 두 항목을 함께 묶어 다루는 것도 좋겠어. 그리고~ 각 항목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시 그림을 활용하면 웹툰의 특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학생 :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 : 그게 뭐니?

학생 : 독자들이 웹툰을 보고 감상을 댓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타 항목에 넣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 아~ 우리 민철이, 똑똑한 걸. 멋진 생각을 했구나.

학생 : 감사합니다~ 선생님!

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매회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는 카툰과 달리, 웹툰은 제1화, 제2화와 같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 화면을 연속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웹툰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 항목은 장면의 클로즈업에 해당되는 예시이므로 ㉡ 항목을 뒷받침할 예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② ㉠ 스크롤바를 이용한 감상은 웹툰의 본질이다. 따라서 예시 그림으로 ㉠이 적합하다. ⑤ 댓글로 감상을 남기는 것은 학생이 떠올린 내용으로, 기타 항목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

[3] 이번에는 전통놀이에 대한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놀이 문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선 초기에 놀이는 하층민이나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즐길 놀이가 있었는데 ‘타구 놀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놀이는 오늘날 골프와 매우 유사했는데, 막대기로 공을 쳐서 여러 개의 구멍 속에 넣으면 점수를 얻어 승부를 내는 놀이였습니다. 공을 친다는 뜻으로 붙여진 ‘타구’는 일명 ‘격구’라고도 하는데, 세조 때에 이르러 공을 치는 부분인 ‘방’과 자루를 합쳐 만든 도구로 즐기는 놀이라 하여 ‘방회’, 또는 ‘방’으로 공을 친다고 해서 ‘격방’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놀이는 중국에서 전래되었는데,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종실록』에 의하면,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벼슬하던 도흥, 유운 등이 태조 이성계에게 자신들이 본 타구를 알려 준 데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 때 타구는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고, 세종, 세조 때를 거치면서 궁중에서도 성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말부터 타구는 지배층의 기록에서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이는 예법을 중시한 시대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종 때에 이르면 궁중 안에서의 각종 놀이 문화가 급격히 감소될 뿐 아니라, 국왕이 종친과 더불어 활쏘기를 하는 것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은 만물과 함께 할 수 없고, 임금은 신하와 그 장단을 거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3.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에는 ‘타구 놀이’가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타구 놀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즐길 놀이였으며 ①, 막대기로 공을 쳐서 여러 개의 구멍 속에 넣는 놀이였다 ②. 또한 타구 놀이는 ‘격구’, ‘방회’, ‘격방’ 등으로 불렸으며 ③, 예법을 중시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점차 쇠퇴해 갔다 ⑤. 정답 ④

[4~5] 이번에는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에 관한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나운서(여) : 오늘은 문화재청의 최 국장님을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조사 상피(相避)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청취자들에게는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에서 ‘상피 제도’라는 용어가 생소할 텐데요,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국장(남) : 예~ 상피 제도는 조선 시대에 관리를 임명할 때,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지역을 피하는 제도입니다.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아나운서(여) : 그렇다면 이 제도가 문화재 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 국장(남) : 지자체가 주관하는 건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지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조사 기관 단독으로는 지표 조사를 할 수 없게 한 것이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선 시대에 상피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지표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와 조사 기관 간에 유착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조사 기관이다 보니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럴 경우 그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아나운서(여) : 예~ ‘문화재 조사 상피 제도’는 문화재 조사를 할 때 해당 지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군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의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는 조사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최 국장(남) :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지자체와 연관된 기관의 단독 조사를 금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만 받으면 단독 조사도 가능합니다.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우선 …….

아나운서(여) : (급히 말을 막으며) 잠깐만요 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지) 국장님 말씀은 문화재청에서도 현실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는 얘기군요. 그래도 아직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최 국장(남) : 물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문화재

손실로 인한 비용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큼니다. 문화제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하기 힘듭니다. ‘문화제 조사 상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출제의도] 인터뷰를 듣고, ‘아나운서’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아나운서’는 인터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② ‘아나운서’는 대담자가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말하려고 하자, 화제의 초점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대담자의 말을 막고 있다. ③ ‘아나운서’는 대담자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하며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④ ‘조사 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와 같이 ‘아나운서’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질문하여 대담을 유도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대담의 내용에 적절한 속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겠지요.’라는 대담자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지자체와 조사 기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유착(癒着) 관계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사 기관은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가장 적절한 속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이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이다. ③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꾀한다는 뜻이다. ④ 임시변통을 의미한다. ⑤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거나 각기 행동한다는 뜻이다.

6. [출제의도] 그림을 보며 연상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목표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난 배의 모습(㉔)과 경유지에 정박하여 배를 점검하는 모습(㉕)을 통해 ‘고난에 직면했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재설정에 관한 내용은 떠올리기 어렵다. 따라서 ㉔와 ㉕를 통하여 ‘상황에 맞게 중간에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연상하기는 어렵다. 정답 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경우 ‘(소곤대는 목소리) 거슬리지만’과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감미롭습니다’에서 대조의 표현이 드러나 있고, ‘여러분의 모습, 한 떨기 꽃’에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또 ‘숨소리조차 죽이며 책 읽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과 ④에는 남을 배려하는 표현만 나타난다. ②에는 비유적 표현, ③에는 대조와 비유의 표현만 나타난다.

8.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끌어 낸 논지가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육아 문제의 해결 방법은 ‘자료1’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9. [출제의도] 개요를 수정·보완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개요의 항목 중, II-1은 ‘산업 기술 유출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신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미비’는 산업 기술 유출에 따른 문제점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㉑의 하위 항목에 추가한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10. [출제의도] 어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무꾼’은 체언 ‘나무’에 접미사 ‘-꾼’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로서, 직업과의 관련성은 없지만, 부정적 의미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C에 들어갈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막둥이’는 ‘막내아들’을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② ‘장사치’는 ‘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③ ‘봉급쟁이’는 봉급생활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⑤ ‘얼뜨기’는 ‘다부지지 못하고 겁이 많아 얼빠진 데가 있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1. [출제의도] 글을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화제에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다른 문장과 순서를 바꿀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았었-’은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와는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따라서 ‘오늘’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쓰였기 때문에 ‘-았었-’이 아닌 ‘했습니다’와 같이 쓰는 게 옳다. ② ‘안건은’이 주어이므로 이에 호응하는 서술어는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가 옳다. ③ 글의 흐름상 ‘그래서’가 적절하다. ④ ‘일정한 형식을 취하여 따르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빌려’가 맞는 표현이다.

12. [출제의도] 부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부디’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인데, 문장에 놓이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도 놓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겨우’는 수사(‘열’) 바로 앞에 위치할 수 있다. ② ‘바로’는 체언인 ‘열’을 꾸미고 있다. ③ ‘설마’는 화자의 부정적인 추측(“~않겠지”)을 강조하면서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다. ⑤ ‘못’은 용언 ‘만나다’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꾸미고 있다.

[13~18] [시가 복합]

(가) 김남조, 「생명」  
(나) 문정희, 「윤포의 기억」  
(다)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13.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겨울보리’, ‘겨울 나무들’ 등을 소재로 하여 시련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뿔발’, ‘퍼덕거리는 것들’(바다 생물들) 등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힘들지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는 봄 경치를 매개로 하여 자연을 즐기는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의 공통점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답 ②

14. [출제의도] 시의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처럼 겨울 나무에서 생명력을 잃어 내고 있다. (다)는 ‘엷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하구나.’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이 지난 뒤 봄기운이 완연한 산과 들을 노래하고 있다. (가)의 경우 ‘겨울→봄’과 같은 계절의 순환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계절은 변화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계절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15.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면서 온다’, ‘~ㄴ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 등과 같은 시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반복 구조는 ‘생명’과 ‘진실’의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정서(태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냉소적인 어조가 아니라 단정적인 어조이다. 아울러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16. [출제의도] 색채 이미지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㉑은 (나)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력을 품고 있는 색채 이미지로 쓰이고 있다. ㉕에서 ‘복숭아밭의 검은 줄기’는 ‘싱싱하다’고 한 것을 통해 ‘검은’이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에서 ‘검은’은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을 암시한다. ②에서 ‘검은’은 ‘죽음’을 의미한다.

17.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화자는 ㉔(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함)처럼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이를 분주한 농촌의 일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18. [출제의도] 시적 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포구’는 ‘뿔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다. 여기서 들려오는 ‘무위한 해조음(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자연의 파도 소리)’을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여길 단서는 시 속에서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곳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현실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② (나)의 ‘뿔발’에는 ‘퍼덕거리’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이 ‘먹이를 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19~21] [예술] 박이문, 「예술의 다양성과 단일성」(재구성한 글)

1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맥을 고려할 때, ‘이상’은 예술 작품 해석의 궁극적인 목표, 즉 예술 작품에서 단일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글쓴이는 그런 ‘이상’을 부단히 지향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답 ③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샤갈이 파리에 있을 때 고향인 비테프스크를 기억하면서 그린 작품이다. 위 글의 글쓴이는 예술 작품이 유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작품을 둘러싼 창작의 과정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가의 창작 의도, 심리 상태, 당대의 예술 동향 등을 종합하여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는 반응이 글쓴이의 관점에 가장 가깝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③과 ④는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고, ①과 ⑤는 부분적인 요소로만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기에 부적절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특정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의 글쓴이는 예술 작품은 유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반면 <보기>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수용자에 의해 완성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④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과 ②는 글쓴이 주장에 가까운 관점이다.

[22~25] [현대소설] 양귀자, 「멀고 아름다운 동네」

22.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서술자는 주로 등장인물인 ‘그’의 눈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 넓은 서울특별시의 ~ 보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 다 왔다는 ~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등에서와 같이 ‘그’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과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⑤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옮겨 가며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 뿐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3. [출제의도] 소설 속 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C(원미동)는 ‘그’와 식구들이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가는 곳이지만, ‘그’가 평소에 정착을 소망하던 공간이라 판단할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집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기에 ‘그’에게 서울은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지낸 공간이다. ⑤ ‘아내는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 놓기는 한 모양이었다.’에서처럼, ‘그’는 C로 향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희망을 품는다고 여기고 있다.

24.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장롱의 흠집들은 이사를 하면서 생긴 세월의 흔적이다. 이번에 새로 생긴 흠집(생채기)은 훗날, 또 한 번의 이사를 했음을 알려 줄 흔적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앞으로의 삶이 여전히 험겨울 것임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③ 울망줄망한 세간은 ‘그’로 하여금 가난한 형편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④ ‘그’는 결혼 후 ‘두 개의 방과 마루’를 얻기 위해 악전고투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이는 가장으로서 부담을 지고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25.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설의 주제 의식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그’와 ‘아내’는 서울에서도, 원미동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집을 마련해서 원미동까지 이사 왔지만 채 1년이 되지 않아 흐뭇한 마음(행복,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소설은 부평초처럼 떠도는 소시민의 애환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인물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갖추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는 있으나,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쓴 작품은 아니다. ③ <보기>를 보면, ‘아내’는 서울에서 멀리 쫓겨 와 부천에서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소설은 소시민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돌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지, 꿈은 멀리 있지만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26~29] [언어] 이광호, 「유의어 검증」 (재구성한 글)

26. [출제의도] 지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는 유의어 검증의 방법들은 소개되어 있지만 다양한 유의어 습득의 의의를 언급한 부분은 없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③ ‘동일한 문맥에서 그 단어들을 교체하여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의어로 인정한다.’(2문단)는 문장을 보면, 어떤 경우에 두 단어를 유의어로 인정하는지 알 수 있다. ④ ‘그런데 유의어

관계에 있다 해도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없다.’(2문단)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체 가능한 두 단어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7.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립어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 두 단어 사이의 의미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므로’와 ‘대립어가 다르면,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는 대립어가 같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3문단)를 보면, ‘깨끗하다’와 ‘맑다’의 대립어는 각각 다르지만, ‘아래’와 ‘밑’의 대립어는 ‘위’로 동일하므로, ‘깨끗하다’와 ‘맑다’의 의미 차이가 ‘아래’와 ‘밑’의 의미 차이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물이 깨끗하다’에서 ‘깨끗하다’ 대신에 ‘맑다’로 교체해도 의미 차이는 없다. 즉, 두 단어는 교체검증에 의해 유의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② ‘결레가 깨끗하다’에서 ‘깨끗하다’ 대신에 ‘맑다’를 넣어서 유의 관계에 있는 두 말의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대립어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두 말 사이의 의미 연관성이 매우 크므로, ‘아래’, ‘밑’은 대립어가 ‘위’로 동일하여 유사성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배열검증을 설명한 부분이다. 배열검증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배열하여 의미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실개천’과 ‘내[川]’를 배열했을 때, 두 말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말을 물이 흐르는 폭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두 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 말 사이에는 의미의 동질성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29. [출제의도]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어울림’은 ‘어우르다’의 어간 ‘어우르-’에 접사 ‘-이’가 붙어 파생한 후, 명사 파생 접사인 ‘-ㅁ(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끝맺음’은 합성 어근인 ‘끝맺-’에 접사 ‘-음’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② ‘눈웃음’은 어근인 ‘눈’과, 파생어 ‘웃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⑤ ‘헛수고’는 어근인 ‘수고’에 접사인 ‘헛-’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30~32] [인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삶과 철학」 (재구성한 글)

3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에서는 ‘컴퓨터’와 ‘인간’, 그리고 ‘본능적 자아’와 ‘관념적 자아’가 대비되어 서술되고 있다(ㄱ). 또 철학자 데카르트와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상황을 가정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ㄷ). 그러나 위 글에는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ㄴ), 데카르트(전문가)의 말은 인용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반론이나 반박이 없다(ㄷ). 정답 ②

31. [출제의도] 사례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여 몸이 반응한다.’(3문단)는 본능적 자아의 기능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런데 화려한 버섯을 독버섯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는다는 사례는 본능적 자아의 기능이 아닌, 관념적 자아의 기능이다. 정답 ⑤

32. [출제의도] 대상이 지닌 특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㉑와 ㉒는 컴퓨터를 지칭하며, ㉓와 ㉔는 관념적 자아를 지닌 존재(인간)를 지칭한다. 지문에 의하면, ‘언어적 표현의 주체가 되는 자아는 관념적 자아이다.’(3문단)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㉑는 언어적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㉓는 언어적 표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33~35] [극문학] 천승세, 「붓물은 터졌어라우」

33. [출제의도] 인물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 노인은 붓둑 때문에 꿈실네와 돈술이 갈등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술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34. [출제의도] 무대 상황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A는 꿈실네의 집으로, 꿈실네와 돈술이 갈등하는 사이에 정 노인이 등장하여 중재를 시도하기 시작하는 공간이다. B는 돈술의 집으로, 꿈실네가 퇴장한 후에 정 노인이 돈술을 설득하는 공간이다. A에서 B로 이동한 후에도 돈술이 정 노인의 말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갈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꿈실네는 돈술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속마음과는 달리 절대로 붓둑을 트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빨리 붓둑을 트고 싶다는, 즉 돈술과 빨리 뗫어지기를 바란다는 심리가 반영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② A에서는 붓둑 때문에 꿈실네와 돈술이 갈등하고 있고, B에서는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정 노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⑤ B에서 정 노인은 A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준섭의 말을 제시하며 돈술을 설득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에 담겨 있는 심리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㉑은 꿈실네의 인물 됴됨이에 대한 정 노인의 평가를 인정하는 돈술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만, 정 노인이 한 질문의 궁극적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정답 ④

[36~38] [과학] 존 그리빈 편, 「손대칭 분자」 (재구성한 글)

36.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파스퇴르의 실험과 신약 합성 화합물의 예를 들어 왼손분자와 오른손분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손대칭 분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정답 ④  
【오답풀이】 위 글에서는 ①, ②, ③에 관해서 다루지 않았다. ⑤ 손대칭 구조를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파스퇴르이다.

37.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보고 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파스퇴르의 실험에 의하면, a는 거울상 관계에 있는 왼손분자와 오른손분자가 모두 들어 있는 라세미산의 용액이고, b는 두 종류 중 하나만 들어 있는 타르타르산의 용액이다(①, ②). b와 c는 같은 손모양의 결정으로 만든 용액이므로 맛이나 물리적 특성에 차이가 없다(③). c와 d는 다른 손모양의 결정으로 만든 용액이므로 편광을 비추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뜨린다(④). e는 왼손분자와 오른손분자가 같은 비율로 섞인 용액이므로 이를 통과한 편광은 구부러지지 않는다. 정답 ⑤

3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사례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탈리도마이드)은 거울상 분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위 글에서 ㉠은 효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손대칭 분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으면 나프록센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은 거울상 분자가 각각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사례이고, ②, ④, ⑤는 거울상 분자의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39~42] [사회] 제러미 리프킨, 「아웃소싱 방식의 소유」, 『소유의 종말』 (재구성한 글)

39. [출제의도] 글의 짜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각 문단의 내용은, ‘(가) 용어의 정의(도입), (나) 아웃소싱의 발전 과정(전개), (다) 아웃소싱의 긍정적 측면(장점), (라) 아웃소싱의 예상되는 문제점(단점), (마) 종합 및 미래 전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다), (라)는 대등 관계에 있는 문단이며, (마)는 마무리 문단이다. 정답 ①

40. [출제의도] 제시한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A기업을 중심으로 광고·홍보와 물류·배송의 외부 전문업체가 아웃소싱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 장기적 소유보다 단기적 점속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장기적 소유를 유리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기업은 자사의 핵심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문을 위탁한다[(가)]고 하였으므로, 외부에 위탁하지 않은 분야(생산, 연구 개발)를 핵심 전략 분야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④는 (다) 문단, ⑤는 (라)와 (마) 문단을 근거로 이해한 내용이다.

41. [출제의도] 글쓴이의 전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결국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이 기업 운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경영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③

42.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입다’의 의미에는 ‘옷을 몸에 껴거나 두르다.’, ‘피해나 손해를 보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누명 등을 쓰다.’, ‘도움을 받다.’ 등이 있다. ㉠의 문맥적 의미는 ‘도움을 받다.’이므로 ③과 유사하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점수나 학위를 따다. ② 용납 또는 용인하다. ④ 기운이 닿다. ⑤ 주는 것을 가지다.

[43~46] [기술] 유상연, 「미라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재구성한 글)

4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sup>14</sup>C는 대기 중의 질소(<sup>14</sup>N)가 우주선과 반응하여 만들어진데,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sup>12</sup>C가 1조(兆) 개 있다면 <sup>14</sup>C는 1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sup>14</sup>C와 <sup>12</sup>C는 1 : 1조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44.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이 가리키는 나무토막이나 빠는 동·식물이 죽은 상태이므로 더 이상 대기를 호흡하지 못한다. 동·식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3문단), 호흡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내부에는 <sup>14</sup>C와 <sup>12</sup>C의 비율이 일정하

게 나타난다.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외부의 탄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동·식물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방사성 원소인 <sup>14</sup>C는 붕괴되기 시작하여 결국 <sup>14</sup>N으로 돌아간다. 정답 ⑤

45.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발굴된 유물에 남아 있는 <sup>14</sup>C의 양이 처음 양의 12.5%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반감기를 3번 거친 결과이다. 1차 반감기가 지났을 때 처음 양의 50%가 남고, 2차 반감기가 지났을 때는 50%의 반인 25%가 남고, 3차 반감기가 지났을 때는 25%의 반인 12.5%가 남는다. 따라서 ‘6,000년×3회’를 계산하면 18,000년이 된다. 정답 ③

46. [출제의도]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밝히다’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알다.’는 의미인 ‘규명(糾明)하다’로 바꿀 수 있고, ㉡의 ‘끄집어내다’는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의 의미인 ‘추출(抽出)하다’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①

[47~50] [고전 소설] 작자 미상, 「두견진」

47.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보여주기 기법을 구사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③ 보여주기 기법은 사건 전개를 느리게 한다. ⑤ 자리다툼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로만 전개되고 있으므로 액자구성으로 볼 수 없다.

4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상좌(上座)를 차지한 등장인물은 두꺼비이며(ㄱ), 자리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나이’이다(ㄴ). 정답 ②

[오답풀이] 두꺼비가 비통해 하는 것은 거짓 행동이므로 여우의 질책으로 상처를 입은 인물을 알 수는 없다(ㄴ). 노루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위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ㄷ).

49.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두꺼비가 제일 연장자임을 모든 동물들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여우는 억울해 하며 두꺼비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여우가 중론을 받아들여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토끼는 상좌를 차지하는 기준으로 ‘나이’를 제시해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를 확인하자고 제안한다. ② 노루는 허리가 굽은 자신의 외양을 근거로 나이가 많다고 주장한다. ④ 두꺼비는 동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도 거짓으로 나이가 많다고 대응한다. ⑤ 여우는 천지개벽할 때 황하수를 쳤다는 것을, 두꺼비는 벌 박을 때 뽕 나무와 황하수 칠 때 사용한 나무를 자신이 심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50. [출제의도] 주어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여우와 두꺼비의 허무맹랑하고 과장된 대화 내용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를 비판하는 데에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린다.’는 의미를 지닌 ‘허장성세(虛張聲勢)’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설상가상 :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달아 일어난. ② 방약무인 : 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 ③ 적반하장 :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람. ④ 노심초사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